

# 지역 제품에 디자인을 입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지역 제조-디자인 융합 R&BD’ 사업 추진

(주)에어패스 등 3개 제조업체, 아이디(주) 등 디자인업체 협업

(재)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서남권 디자인 사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3억여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광주·전남북·제주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디자인 융합 플랫폼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 다채로운 디자인 융합 사업화 R&D를 통해 지역 디자인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미션이다.

브랜드 제품 사업화 등 ‘디자인 기업 역량제고 사업’, 서남권 디자인 정책 연구 등 ‘디자인 거점 기반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진흥원이 추진한 ‘지역 제조-디자인 융합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은 다양한 성과를 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제조기업과 디자인 회사의 ‘윈윈 전략’이 돋보이는 이번 사업은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확보하자는 취지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5월 지원과제 공모를 통해 3개 업체를 선정한 진흥원은 이후 과제 중간 점검,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컨설팅 지원, 최종결과 평가회를 통해 개발제품의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북에 사업장을 둔 (주)하다(대표 하중우)는 광

주 디자인 기업 아이디(주)(대표 김귀성)와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스마트팜 방제로봇 디자인 개발’을 함께 한 두 업체는 하이테크, 사용성, 안전성 등을 키워드로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실용성을 고려한 실용적 디자인의 스마트팜 방제로봇을 개발했다.

광주기업 (주)에어패스(대표 정홍식)는 (주)다인바이(대표 최태욱)와 손잡고 ‘정정환기 시스템 신제품을 위한 디자인 개발’을 추진했다. 엔진 커버를 모터 삼아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깔끔하고 심플한 컨셉의 디자인이 입혀진 제품을 완성했다.

그밖에 전남 기업 (주)정우엔지니어링(대표 김재일)은 광주 업체 디자인칼트(대표 김진선)와 ‘새로운 디자인의 안전성이 향상된 전기차량 비상전원용 모듈형 파워뱅크 개발’ 과제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내년까지 제품을 상용화시킬 예정이다. 개발된 제품은 약 21억 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올해 대비



(주)하다와 아이디(주)가 협업한 ‘스마트팜 방제로봇’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2022년 기업 전체매출은 16%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진흥원은 마케팅과 국내·외 바이어 상담 등을 지원, 단기간에 사업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이번 ‘서남권 디자인 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브랜드제품 사업화 지원, 컨소시엄 제품 라인업 지원, 서남권 디자인 정책연구, 디자인 주도 산업지능화 서비스 기반 구축, 서남권 디자인 성과 홍보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했다.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송진희 원장은 “앞으로도 디자인의 주도로 지역 제조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고민하고 개발된 제품은 지속적인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조기업과 디자인 기업 모두 윈윈하는 이번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실용성 강화한 디자인 마케팅에도 효과적

(주)정우엔지니어링·디자인 칼트 콜라보 ‘모듈형 파워뱅크’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이 올해 추진한 ‘지역 제조-디자인 융합 R&BD’ 사업은 지역 제조기업들에게 도움을 준 프로젝트였다.

지난 2009년에 설립된 (주)정우엔지니어링(대표 김재일)은 지난해 총매출 100억원을 기록한 중견 기업으로 광주 기업 디자인칼트(대표 김진선)와 손을 잡고 사업을 진행했다.

‘새로운 디자인의 안전성이 향상된 전기차량 비상 전원용 모듈형 파워뱅크 개발’을 과제로 정한 두 업체는 다양한 디자인 시안을 공유하며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이번 프로젝트가 정우엔지니어링에게는 제품에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첫번째 시도였다. 지금까지는 실용성 있는 좋은 제품을 개발

해 판매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번 사업을 계기로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지금까지는 제품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에는 별 신경을 쓰지 못했죠. 디자인이 접목된 제품이 마케팅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무조건 예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정성, 실용성 등을 강화한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품 컬러 역시 회사 제품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우엔지니어링 강준훈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는 제품들은 디자인에 더 많



(주)정우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칼트의 ‘모듈형 파워뱅크’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은 신경을 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엔 두 업체가 개발한 모듈형 파워뱅크는 특허 출원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배다인 동화작가 ‘교육 연극을 활용한 수업모형 탐구’ 출간

연극의 기본 요소에는 놀이 기능이 있다. 참여와 유희를 동반하기에 참가자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준다. 오늘날처럼 다변화, 복잡화하는 사회에서 연극, 특히 어린이를 위한 교육연극의 역할을 중요하다.

최순진 배다인 동화작가가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연극 기법을 연구한 책을 펴내 눈길을 끈다.

저자는 조선대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돼 활발히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교육 연극을 활용한 수업모형 탐구’(한길사)는 연극의 놀이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문학가이자 대학 현장에서 연극 관련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기에, 이번 책은 단순한 이론서보다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국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극 수업모형에 초점을 뒀다. 저자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부터 국어과 교육과정에 들어온 연극 단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교사들이 연극 단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의사소통 역량 기르기, 문장 향유 역량 기르기, 자기 성찰, 계발 역량 기르기가 이에 해당한다.

2장은 극본을 통해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갈등 해결 활동, 다양한 매체 표현 활동, 공감하며 듣기 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 3장은 동화 작품을 극본으로 변형한 부분이다. 저자는 독후 활동 및 연극 단원에서 낭독극이나 실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 8개의 작품을 수록했다. 한편 배 동화작가는 지금까지 ‘은골무’, ‘파도 너머 푸른 꿈’, ‘생각이 들리는 세계’ 등 작품집을 펴냈으며 문학 관련 저서로 ‘동화의 재구성 능력개발’ 등을 펴냈다. 제14회 한국문학백년상 아동부문 수상, 광주전남아동문학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광주교육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



야간조명을 밝힌 광주 폴리 '99칸'

〈광주비엔날레 제공〉

## “연말연시 ‘폴리투어’ 떠나요”

광주비엔날레, 아트조명 프로젝트…27일 온라인 투어

광주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인 ‘광주 폴리’가 연말연시를 맞아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와 광주시는 광주폴리 아트조명 프로젝트와 온라인 폴리투어 등 폴리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광주폴리 아트조명은 두 작품에 설치됐다. 광주읍성의 복문터인 충장지안센터 앞 ‘99칸’(피터 아이젠만 작)에 설치된 새해 인사 ‘HAPPY NEW YEAR’ 아트조명은 구도심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다.

이와 함께 ‘아이라브 스트리트’(MVRDV 작) 작품과 접한 광주서석초등학교 담벼락에 꽃과 새모양의 LED 채널조명과 은하수 조명을 설치해 운영한다. 아트조명은 오는 2022년 구정 때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광주폴리투어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기획도 준비 중이다. 광주폴리투어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광주폴리 작품을 폴리도슨트의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운영한 광주폴리투어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2021년 한국관

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안심관광지(가을시즌) 25선에 선정돼 팬데믹 시대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온라인 투어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광주의 관문에 설치된 광주폴리 작품에서부터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광주투게이트에 설치돼 호응을 얻었던 ‘무등의 빛’(이아남·김민국 작)을 시작으로, 광주영상박물관 8층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의 시티뷰, 무등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광주폴리III 뷰폴리+설치작업 자율건축’(realities:united, 문훈 작), 광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광주폴리III 쿡폴리-청미장, 콩집’(장진우 작), ‘99칸’과 ‘아이라브스트리트’ 작품 등을 온라인 투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투어는 오는 27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ifland’에서 3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110명까지 접속이 가능하며 실시간 참여 인증자에게는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광주폴리 웹사이트 또는 SNS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원초적 세계와 인간의 근원적 만남

김유섭 초대전, 30일까지 산수미술관

서양화가 김유섭 작가의 작품은 원초적이다. ‘검은 그림’으로 불리는 그의 추상 작품 작품들은 거칠거칠 붓질과 두터운 마티에르가 어우러져 보는 이들을 미지의 세계로 끌고 들어간다.

김 작가가 ‘검은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붉은색과 푸른색 등 원색의 강렬함을 대비시킨 에너지 넘치는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김유섭 작가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산수미술관(광주시 동구 산수동 26-4)에서 열린다.

그를 ‘추상회화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작가’라 칭하는 장민한 산수미술관장은 “김 작가는 우리 경험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색채와 이미지를 창출해 관객들에게 낯선 경험을 선사하고 있고, 이것이 관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Floating View 2021’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비정형 추상회화 ‘Floating View(매혹적인 광경)’ 시리즈 신작 8점을 만날 수 있다.

김 작가는 정사각형 캔버스 위에 강렬한 원색의 물감, 대리석 가루, 젓가루와 같은 재료들을 두껍게 칠한 후, 말리고 다시 칠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두껍게 층을 이루는 물감과 돌가루들이 여러 층을 이루며 만들어낸 화면은 화선이 분출해 마그마가 흘러내린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테고의 거대한 협곡처럼 보이기도 한다.

김 작가는 “대표작인 ‘검은 그림’ 시리즈를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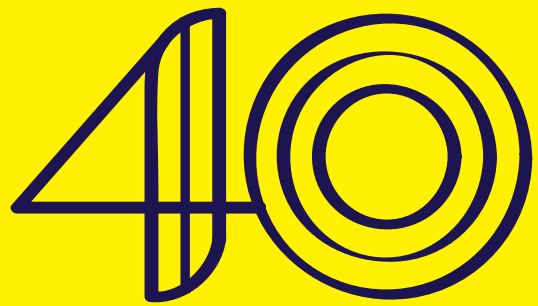


‘Floating View’

전시켜 강렬한 원색을 사용, 빛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며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원초적인 세계의 황홀경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90년대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작가로 활동 중인 김 작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36회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조선대학교 회화과, 독일 베를린국립예술대학교와 대학원 마이스터 과정 졸업 후 동 대학도 조형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한 김 작가는 현재 조선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